

# 나의 學問, 나의 讀書

## 학문적 관심사는 '사회변화' ... 소설 통해 자아발견

李萬甲

서울대 명예교수·사회학



정년을 10여년 앞둔 시기부터  
나의 독서는 전공분야인 사회학보다도  
그것을 넘어선 분야로 확대되었다.  
그와 동시에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변화의 본질과 내용을 이해하고,  
또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짓는데  
필요한 가치를 정리하기 위한  
교양독서의 비중이 점점 커졌다.  
앞으로自我에 관한 책을 쓰고 나면,  
본래의 사회학적 관심사인  
사회변화에 관한 책을 쓸 생각이다.  
그것을 어느정도 마무리짓게 되면,  
나는 다시 학창시절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서  
좋은 문학작품들을 읽어가면서  
작중인물들의 인생 속에  
나의 인생을 투사시켜보고 싶다.

### 책을 읽는 내가지 목적

내가 읽는 책을 독서의 목적면에서 생각하면 내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는 학문적인 연구와 교육을 위한 독서이며, 둘째는 교양을 위한 것이고, 세째는 타인의 부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며, 네째는 오락을 위한 독서이다. 고등학교 시절(지금의 學制로는 고교 3학년과 대학 1·2학년에 해당)에는 교양을 위한 독서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대학에 들어가서부터는 점차 학문적인 연구와 교육의 비중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교수가 된 뒤로는 당연히 연구와 교육을 위한 독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他意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하는 독서 시간도 늘기 시작하였다. 어떤 자격을 부여하거나 상을 주기 위한 심사, 세미나에서의 토론, 혹은 書評을 위한 독서를 해야 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대신 교양을 위한 것과 오락을 위한 독서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교수생활의 초기에는 연구보다도 교육을 위한 독서의 비중이 컸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교육보다 연구를 위해서 책을 읽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停年을 10여년 정도 앞둔 시기부터 나의 독서는 전공분야, 즉 社會學보다도 그것을 넘어선 분야에 급격히 확대되어 가는 동시에 교양과 오락, 그중에서도 오락을 위한 독서의 비중이 열과 시간에 있어서 커지기 시작하였다. 교양을 위한 독서라고 해도 젊은 시절의 교양독서와는 약간 성질이 달라져서 막연히 마음의 양식을 섭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편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변화의 본질과 내용을 이해해야겠다는 실용적인 목적과 또다른 편으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짓는데 필요한 가치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실시하는, 비교적 목적이 뚜렷한 교양독서인 것이다.

오락을 위한 독서는 정년 이후부터는 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정년이 되면서 나의 사회적인 접촉범위는 자연히 축소되었고, 또 의식적으로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좁아지고 있다. 노년에 들어가면 일부러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충고를 자주 친구로부터 듣고

있으며, 또 사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옳은 얘기라곤 인정하지만, 나 자신의 경우로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본래 대외적 접촉은 좋아하는 편이 아니지만, 정년되고 나서는 버리고 있던 연구에 본격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되도록 집에서의 연구생활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시간은 휴식을 취하거나, 라디오, 신문, TV를 통한 뉴스와 생활정보를 들으며 오락독서를 즐기고 가끔 음악을 듣는 것이다.

오락독서는 주로 소설책을 읽는 것이다. 소설을 읽는 일은 나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렸을 때에는 너무나 소설을 읽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들었고, 그래서 단행본으로 된 소설책은 절대로 읽지 않겠다고 스스로 마음 속에서 맹세까지 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대중소설이 아니라 문학적 수준이 높은 소설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학생들의 공통된 관념이었기 때문에 나도 많이 읽었다. 한때는 상당히 문학서적 탐독에 열중하여 문학을 할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기도 하였다. 좋은 문학작품은 나의 정신의 가장 중요한 양식이 되어 있다. 소설을 통하여 나는 여러가지 사람들의 체험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인생의 재미를 맛보는 동시에 철학적인 사색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보다는 그저 습관적으로 소설을 읽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읽는 것이다. 학생시절에도 소설은 교양을 높일 겸 공부라는 작업의 긴장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휴식을 얻는 하나의 방편으로 읽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점차 그것이 습관성으로 변하여 여흥을 할 때에는 가벼운 소설책을 휴대한다는 것이 필수불가결의 요소가 되었으며, 한가지 일을 끝냈다가, 잠자리에 들 때에는 의례히 소설을 읽게 마련이다. 말하자면 소설은 나에게 있어서는 담배와 술 이상으로 중요한嗜好品인 것이다.

### 학문의 迷路에서 보낸 나날들

50代 전반까지만 해도 연구에 관련되어 읽는 책은 거의가 사회학에 관한 것이고, 다른 분야의 책으로는 역사학 정도였다. 가끔

철학, 정치학, 심리학, 인류학에 속하는 책도 읽는 일이 있지만 대개 부분적으로 읽는 것이고, 또 연구답게 정성을 들여서 읽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50대 중반을 넘어설 무렵부터 연구를 위한 나의 독서의 경향은 큰 변화를 일으켰다.

그때 나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관한 논문을 쓴 뒤였다. 그와 비슷한 내용은 이미 약 10년전에 쓴 일이 있었다. 그것은 1967년 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AAS(아시아연구협회) 연차대회에서 발표하기 위해서 쓴 「韓國近代化의 社會學的 含蓄」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다. 이 논문에서 나는 한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운동을 전개하는 주도적인 세력을 지배계급의 바로 下位境界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 가설은 한국사회의 역사적인 변화를 검토하고, 특히 구한말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변혁을 시도한 계층이 누구인가를 탐구하는 한편 내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동안에 서서히 얻어진 가설이었다.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는 사회학분야는 물론 역사학, 심리학분야에까지 관심을 확대하게 되었다. 역사학에서는, 이미 문명의 발상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도전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토인비의 주장이 나의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명제로 간주되었다. 또 하버드대학의 크레인 브린턴이 쓴 「혁명의 해부」도 가설을 입증하는 데 꽤 유용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는 인간의 행동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볼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호만스의 「사회적 행동」이라는 책을 꼼꼼히 읽도록 하였다. 이 책에서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 만족을 얻고 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해진다는 일종의 상식에 속하는 명제를 새삼스럽게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문제를 나는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해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의 측면은 심리학, 사회심리학의 측면이다. 우선 나는 인간의 심리가

무엇인가를 알아볼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심리학개론 책을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하였다. 물론 하나의 개론책만으로는 잘못된 생각을 갖기 쉽기 때문에, 몇개의 개론책을 읽고 인간의 행동의 심리학적 기초를 이해토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점차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에까지 관심을 넓혀나가도록 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심리학교수들을 찾아다니며 내가 더 알고자 하는 사항들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얻어내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서울대의 차재호교수와 조대경교수는 자주 찾아가서 괴롭혔다. 여러가지 사항 중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물어본 사항은 질투·선망·경쟁심 등에 관련된 것이었다. 토론을 거듭하는 동안에 차재호교수는 페스터거의 「사회비교이론」이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 논문을 주의깊게 읽기 시작하였다. 이 이론은 확실히 중요한 암시를 주는 것이었다.

심리학 이외의 또 하나의 측면은 인간의 마음의 과학적인 기초에 관한 것이다. 사람이 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신체 안에서 어떤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뜻한다고 나는 생각하게 되었다. 먹고 마시는 등의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 사람은 쾌감을 느끼지만 그럴 때 어떤 일이 신체 안에서 벌어지는가, 또 생리적인 자극이 아니고 타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혹은 어떤 칭찬을 받고 또는 언짢은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리학적 과정이 체내에서 전개되는가, 그런 것에 관해서 알고 싶어서 화학과 과학사를 전공하는 김영식교수에게

여러가지 엉뚱한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였고, 대학원의 일로 자주 만나게 된 생화학전공의 박인원교수로부터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김영식교수는 나의 학문적 관심에 적절히 응해줄 수 있는 교수로서 임정빈교수를 소개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서울대의 미생물학과를 자주 찾아가서 임교수 뿐만 아니라 홍순우, 강현삼교수를 괴롭히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에 나는 일본의 어떤 책방에 들러서 이것저것 책을 찾아본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매우 흥미있는 책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大木幸介라는 약학자가 쓴 「뇌를 조종하는 분자언어」라는 제목의 200페이지 남짓한 문고본이었다. 그것을 대충 살펴보니 뇌의 화학적인 작용을 쉽게 풀이한 일종의 입문서 비슷한 책이며, 자연과학에 소양이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평이한 내용인 것으로 짐작되었다. 그 책을 사가지고 나는 몇번이고 되풀이해서 읽었다. 그러니까 점차 뇌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 속에서 어떤 화학작용이 벌어지는지 선명해지기 시작하였다. 그후 나는 일본에 들를 때마다 책방을 뒤지고 뇌에 관해 다른 책을 찾았다.

그 중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책은 독일의 뇌생리학자 페스터가 쓴 책을 번역한 「생각함·학습함·기억함」이라는 역시 쉬운 내용의 문고본이었다.

### 후회없는 삶의 마무리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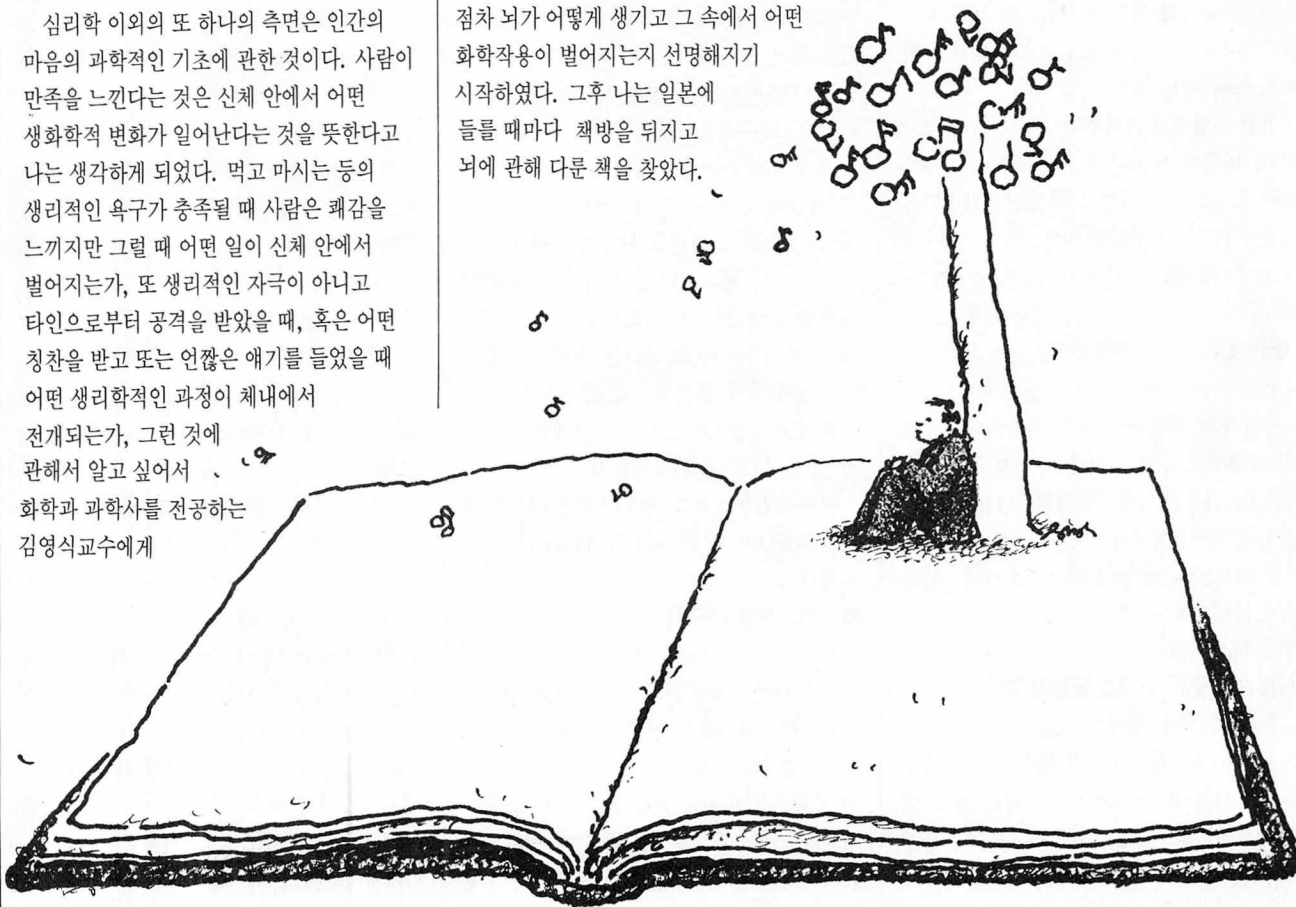
그 두개의 책을 통하여 뇌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을 갖게 된 나는 좀더 깊이 지적탐구를 하고 싶은 욕망을 참을 길이 없어서 뇌에 관한 책이라면 닥치는 대로 사서 읽기 시작하였다. 읽고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나오면 이사람 저사람에 물어보기도 하고, 참고서를 뒤적거리면서 이해하도록 노력하였다. 서울대 화학과의 최명언교수도 그때 도움을 준 교수의 한사람이다.

조금 알기 시작하면 자꾸 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뇌에 관한 얘기, 마음에 관한 얘기, 사회변화에 관한 얘기를 늘어놓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서울대

사회학과의 교수이며 나의 제자인 한상진교수는 영국에 갔을 때 책방에 들렀다가 내 생각을 하여 쿠룩이라는 비교행동학자(ethologist)가 쓴 「인간의식의 진화」라는 책을 사가지고 선사해주었다. 그 책을 읽었을 때에는 뭐가 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이 쓴 글인데 이해하지 못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한구절 한구절 착실히 노트를 해가면서 읽도록 하였다. 세번 읽어 보니까 점차 내용이 선명해지기 시작하였다.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진화했는가 하는 것을 주로 생물학적으로 고찰한 이 책은, 최근의 생물학 연구동향에 관해서 나의 지적 호기심을 굉장히 촉발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 책을 읽은 다음부터 나는 콘라드 로렌츠, 니코 팀버겐, 아이블 아이베스펠트 등의 비교행동학자와 에드워드 윌슨을 리더로 하는 사회생물학자들의 학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의 저서와 논문을 읽는 동안에 나는 어렵듯이나마 인간이 어떻게 진화했고, 인간행동의 특성이 무엇이며, 인간성과 동물성이 어떤 점에서 다르며, 인간의 의식의 생물학적인 기초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해를 가질 수가 있었다.

지금 나는 사회변화에 관한 이론정립을 위한 예비적 작업으로서, 인간의 의식의 기본적인 성질을 파악하고 그에 관한 지식을 정리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그것이 끝나면自我에 관해서 정리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아에 관한 책을 쓰고 나면 본래의 사회학적인 관심사인 사회변화에 관한 책을 쓸 생각이다. 요행히 그것을 해낼만한 시간이 주어지고, 제대로 정신이 또렷하게 작동하여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게 되면, 나는 다시 젊었던 학창시절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서 그 좋은 문학작품들을 읽어가면서 作中에 약동하는 인물들을 바라보고 그 인물들의 인생 속에 나 자신의 인생을 投射시켜보면서 서서히 사라지고 싶다. 그러나 그런 행운이 과연 나를 반겨줄는지야 문제이다. 그것은 역시 요행을 바라는 지나친 욕심이며, 그저 이만큼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한 일이 아니냐고 느끼고 있는 작금의 심경이다.



일러스트레이션 - 이혜리